

장마·하수도 관로 노후에...광주 곳곳 '위험한 싱크홀'

7월에만 4곳 발생 등 5년간 107건...금호동에선 3일만에 또 발생
지반 침하 원인 70%가 하수 손상...50대 여성 추락해 부상 입기도
42%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예산 부족에 개선 대책 '골머리'

장마철 폭우가 2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도심 곳곳에 지반 침하로 '싱크홀(땅꺼짐)'이 생기고 있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광주시 하수도 관로가 노후한 점이 첫 손에 꼽히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탓에 개선도 쉽지 않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 직경 0.7m,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곳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에도 비슷한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복구작업을 한 지 불과 3일만에 싱크홀이 다시 생긴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우회도로 진출입로에 직경 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지난 7일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산사거리 인도에 직경 2m, 깊이 3m의 싱크홀이 뚫려 50대 여성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인근과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인근에서 잇따라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6월) 동안 광주에서는 107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지반 침하는 지반이나 포장면이 침하하는 현상을 넓은 의미에서 지칭한 표현이며, 싱크홀은 지반 침하의 한 형태로 지반 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지표면이 무너져내리는 현상을 뜻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 20건, 2020년 55건,

2021년 11건, 2022년 6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6월 30일까지 벌써 15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이후 장마가 이어지면서 지반 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15건 중 절반에 가까운 7건이 장마가 시작된 6월 25일~30일 사이에 발생했으며, 7월 발생한 건수까지 합하면 건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광주에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5년간의 지반 침하 사고 107건 중 70%인 75건이 '하수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의 원인으로는 도로 다짐 불량 19건, 기타 매설물 손상 3건, 관로공사 부실 2건, 원인 미상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노후한 하수도 관로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면서 물이 새어나와 흙이 스며들고, 지반이 약해져 침하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지반에 장마비가 지속적으로 스며들면서 지반이 더욱 약해졌고, 결국 지반 침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반 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에 매설된 하수관로는 총 연장 4466km이며, 이중 42%인 1910km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



18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복구작업에 앞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구청 제공>

난 노후 관로다.

하지만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광주시에 정비한 하수관로는 총 717km에 그쳤다. 연평균 143여km만 정비하는 상황으로, 전체 관로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또한 광주시는 하수관로 111km를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하수관로 정비가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광주시는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할 시 발생 원인

에 따라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수관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구청 하수 시설 유지비에서 복구비용을 충당하는 식이다. 각 구청은 시정으로부터 하수 시설 유지비를 교부받는데, 이 예산은 독립채산제를 적용받아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을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다.

광주시는 연간 하수도 요금 900억여원을 받고 있으며, 이중 연간 150억여원을 하수시설 정비 비용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광주시 전

체의 하수도를 관리하다보니 땀질식 처방에 그친다고 광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출동해 긴급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선 턱없이 낮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별도의 예산을 통해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침수·산사태·토사 유실 피해 신고 잇따라

해남·강진·곡성 등 농작물 침수

토사 유실에 영양원 환자 병실 옮겨

광주·전남에 장마전선으로 인한 폭우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비 때문에 침수와 산사태, 토사 유실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8일 하루동안 배수지원 6건, 도로 침수 5건, 나무 쓰러짐 7건 등 총 18건의 침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같은 날 전남 소방안전본부에는 침수, 산사태 등 총 78건의 피

해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7시 40분께에는 여수시 돌산읍의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뒷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환자 5명이 다른 병실로 이동 조치됐다.

오후 5시 50분께에는 보성군 노동면 학동리에 토사가 유실돼 철도까지 흘러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전 9시 30분께에는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에서 주택에 토사가 밀려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장마가 이어지는 동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남·강진·곡성 등 농작물

651ha가 침수되고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등 문화재 4곳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산사태 우려로 광주에서는 2가구 4명, 전남에서는 16개 시군에서 696가구 1321명이 긴급 대피했다.

여수시 오동도 동백공영주차장은 지난 17일부터 암반 붕괴 우려에 무기한 폐쇄됐다. 보성군과 화순군을 잇는 국지도 58호선 7.8km 구간은 17일부터 토사가 쏟아져 내려 통행이 통제됐으며, 여수 시도25호선도 통행이 제한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굵은 도로 시속 168km 억울" 과속 적발 운전자 무죄

정식재판 청구해 승소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경찰 암행순찰차에 시속 168km로 적발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최고 시속 80km보다 88km를 초과해 과속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A씨는 과속 단속 사진을 증거로 송치돼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

고 3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SUV로는 굵은 도로인 단속 도로에서 시속 168km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시간인 오전 10시께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서 굵은 도로에서 168km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려운데 증거는 단속 사진 한장 뿐이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개월 영아 숨지게 한 친모 살해 혐의 입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친모(7월 18일자 광주일보 6면)가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은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극

단적 선택을 시도한 A(여·33)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유서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와 영아의 사체 1차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교서 가위에 맞아 중학생 부상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가위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광주서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중학교 급식실 앞에서 A(13)군의 머리에 가위가 1cm 길이로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소방당국은 A군이 다른 학생이 던진 가위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